



## 이달의 포커스 뉴스

### 베트남 식품시장에 부는 유기농 열풍

- 소득 증진,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유기농 식품 및 음료 수요 확대

5P

### 계약서 서명 도장, 아무 데나 찍으면 안 돼?!

- 베트남식으로 인감 날인, 간인, 이니셜 하기에 대해

25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17
☑ <행사참관기> 한-베트남 미래산업 상생협력 포럼 .....	20
☑ <투자> 베트남 법상 담보설정 및 처분 .....	전현우 변호사 22
☑ <법률> 아무 데나 찍으면 안 돼?! .....	김유호 변호사 25
☑ <새로나온 베트남 관련 보고서> .....	27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타잉화성> .....	28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	35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	40





##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장

- 수확 후 폐기되는 농산물이 25%, 시장의 60%는 FDI 기업이 점유
- 중소형 콜드 스토리지가 대부분이며 통합 콜드체인 공급망 부재

### 콜드체인 시장규모

현재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높은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베트남은 약 70만 개의 파렛트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농수산물 보관창고 48개 및 수천 개의 중소형 냉장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합 약 200만 톤 용량의 콜드체인용 창고를 운영 중이다.

### 베트남 콜드체인 시스템 수요 증대 요인

#### 1) 농업분야의 성장

베트남 통계청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농업부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5년 310억 달러에서 매년 약 5%씩 성장하여 2020년 410억 달러에 도달했다. 그중 상온에서 부패가 쉬운 육류와 유제품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 3.2%, 11.2%로 높은 성장을 보였다.

#### 2) 현대적인 소매시스템 및 패스트푸드 서비스 및 공급망의 개발

급속한 도시화, 중산층의 증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가는 현대적인 식품 소매 및 유통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5년간 베트남의 전통 시장 수는 그대로인 반면, 현대적인 소매 식료품점 및 패스트푸드 서비스의 성장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베트남 콜드체인 시스템의 현실

△ 농산물 수확 후 손실률 20~25%에 육박, △ 콜드체인 보관 임대료 증가, △ 고가의 초기 투자 비용

### 수요대비 공급 부족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콜드체인 저장고는 90% 이상의 용적률을 보였다. 콜드체인 저장고의 수요는 높으나 이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극소수이며, 완전한 콜드체인 저장고 및 유통망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은 드물다. 베트남은 세계 3위의 수산물 수출국이지만 베트남의 콜드체인 저장고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베트남 신선식품 보존수요의 30~35%에 불과하다. 시장 점유기업의 60%는 FDI기업이며 이미 이용 가능한 창고가 90% 이상 사용 중이기 때문에 콜드 스토리지 임대료도 급증하고 있다.

### 콜드체인 관련 정부 정책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2년 1월 27일 자 결정서, '2045년 전망, 2030년까지 베트남 무역발전을 위한 산업무역전략 계획'(Decision No. 111/QD-BCT)을 공포했다. 부록 제3장 제10조의 주요 내용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내외 물류창고 및 물류 가격 변동이 불확실한 시기에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문 창고 및 농산물과 식료품을 보관하는 콜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 베트남 물류 산업 정책 간담회 주최기

- KOTRA·VIETRADE 공동 주최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정부 부처 및 기업 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부는 애로개선 및 기업지원을 약속

### 물류산업 발전 정책과 방향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청 부청장은 베트남의 물류비용은 GDP의 16.8%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의 물류성과지수(LPI)는 2016년 64위에서 2018년 39위로 2년간 25계단 상승하였으며, 아세안국가 중에서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분야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22일 자 '2025년까지 베트남의 물류산업 경쟁력 개선에 관한 결정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물류산업의 서비스분야 기여도를 GDP의 5~6%로 확대하고 물류 서비스 성장률은 15~20%에 도달시키고자 한다. 또한 물류산업의 아웃소싱률을 50~60%로, 물류비용은 GDP 대비 16~20%로 유지시키면서 세계물류 성과지수 50위권 내에 진입하는 것 등의 목표가 있다.

### 베트남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베트남 교통부 산하 운송국 부국장은 물류 기업 수는 2020년 말 기준 약 3만 5,744개에 도달해 2019년 대비 5.5%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 화물 유통허브 개발, 물류서비스 기업의 운송분야 역량강화, 물류 분야 인적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 물류산업 지원 메커니즘 및 정책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운송국 부국장은 기업 물류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및 운송 규모를 증대하기 위해서 물류 기업, 정부, 부처가 모두 협력해서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물류 서비스 체인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물류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 양국기업 간 물류 분야 협력방안 및 제안

베트남의 대표적인 현지 물류 기업 중 하나인 BEE LOGISTICS의 대표는 한국-베트남의 물류 협력이 가능한 사업 분야는 합작 판매, 현지 물류 에이전트 협력, 화물의 해운 및 항공 수송협력, 중소기업의 수출입 판로 개척을 위한 협력 구축, 전자상거래-창고-유통업을 통합한 3PL, 4PL, 5PL 등의 서비스라고 제언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육류 해외 화물 운송 과정을 E-Seal 및 E-Management 등으로 단순화하고 통관 과정에서 반조립 및 재포장을 허용해 물류 산업이 처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 한국 물류협회의 건의 사항 및 정책 제안

2021년 기준 베트남의 화물 운송 수단 점유율은 육로(74.80%), 내륙수로(19.57%), 항만(5.26%), 철도(0.35%), 항공(0.35%) 순으로 도로 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주베트남한국물류협회(KOCA)는 현행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49%) 완화, 정부 물류 인프라 서비스 요금 표준화, 증가하는 콜드체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콜드체인 관련 시행령 수립, 정부차원의 현지 물류사와의 협력 지원, 신규 항만·고속도로·국경 수출입 등 물류 인프라 개발을 베트남정부에 제안했다.





## 베트남 식용 김 시장 동향

- 한국산 김 제품, 베트남 식용 김 시장 선도
- 경쟁격화로 다양한 맛, 건강 마케팅 등 차별화 전략 필요

### 시장 규모 및 동향

베트남인들은 김을 스낵용으로 소비하고 있어 조미김에 대한 수요가 크다. 조미김은 오리지널 맛 이외에도 와사비, 허니버터, 김치, 아보카도 등 다양한 맛으로 유통되고 있다. 조미김에 국한된 통계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김스낵이 포함된 ‘조미(짭잘한) 스낵(Savoury Snack)’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베트남 조미 스낵 시장 규모는 약 8,840만 달러로 최근 5개년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과 중산층 확대에 힘입어 조미 스낵의 소비자층이 넓어져 기존에는 조미 스낵의 소비자층이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젊은 성인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 수입규모 및 동향

베트남 식용김(HS 1212.21)의 수입규모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수입규모가 약 2배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수입규모는 약 1,163만 달러로 직전 5년간 연평균 1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한국(40.1%), 인도네시아(32.1%), 중국(13%)으로 상위 3개 국가가 2020년 전체 수입액의 약 85%를 차지하였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며, 순위가 급상승한 점이 주목된다.

###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주요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김 스낵 제품으로는 비비고, 청정원, 갓바위식품 등 한국산 브랜드와 태국 브랜드인 Tao Kae Noi 및 베트남 현지 브랜드인 Lekker Foods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소비자 사이에서 한국산 김 스낵이 타국가 브랜드보다 영양 등이 더욱 풍부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한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품 포장에 “Korean Gim” 문구를 삽입하는 등 한국의 이미지를 포장에 활용하는 타국가의 브랜드도 있다.

### 시사점

최근에는 청소년층 뿐만 아니라 직장인 등 소비자 층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김 스낵은 모임이나 연회에서, 맥주와 잘 어울리는 식품으로 소개될 만큼 베트남 시장에서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김 브랜드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김 업체들은 와사비, 데리야끼 등을 가미한 다양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이라는 키워드에 발맞춰 제조과정과 제품 성분 등을 강조한 패키징,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가격에 민감한 현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장의 현지 설립 등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불교의 영향으로 채식 인구가 많은 현지특성을 감안한 불교 신자 타겟 마케팅 등 다양한 차별화된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베트남 식품시장에 부는 유기농 열풍

- 소득 증진,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유기농 식품 및 음료 수요 확대
- 도시 거주 중산층 위주로 유기농 농산물 및 제품 인기, 프리미엄 마케팅이 효과적

### 베트남 건강 및 웰빙 제품 시장의 성장

베트남의 소득 증가에 따라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식품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베트남 소비시장에서 유기농 식품 및 음료(F&B)는 심심치 않게 선보였으나 팬데믹을 겪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이 더 제고되면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유기농 제품 소비시장은 2018년 1,780만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3,120만 달러로 집계되고 2018~2021년 기간에 연평균 54.7%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 늘어나는 베트남 중산층, 가격 외 품질도 중요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9,8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그중 절반이 35세 미만인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Y세대[24~39세] 및 Z세대[15~23세]는 약 4,000만 명으로 추산)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중산층 및 부유층'으로 분류된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이며 이 수치는 2026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인 2,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기농 식품 소비 트렌드

구글의 '베트남: 2020년 검색'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에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온라인 검색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0년 급상승한 식품 관련 검색어에는 "키토식" 및 "키토 메뉴" 등이 있었으며 각각 900%, 650% 급격히 증가했다. 사과, 블루베리, 치아씨드, 케일, 셀러리, 그릭 요거트, 콤부차 등과 같은 '슈퍼푸드'는 베트남 가정에서도, 외식시장에서도 각광받는 재료이다. 많은 중산층 소비자가 유기농 식음료 제품의 품질과 건강상의 이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대적 높은 가격으로 임에도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유기농 식음료 제품을 우선시해 구매한다. 유아용 분유, 유제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유기농 식음료 판매순위 중 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유기농 제품 생산 현황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도 유기농 식음료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유기농 농법에 따라 재배되는 농지 면적은 2017년까지 7만 6,000헥타르에 불과했으나 2021년 말까지는 49만 헥타르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8년에는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성·시가 13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그 수가 43개 성·시로 증가했다. 베트남의 주요 유기농 농산물로는 쌀, 새우, 코코넛, 커피, 코코아, 우유, 차, 야채, 과일, 계피 등이 있으며, 베트남은 2019년 3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유기농 식음료 제품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한 바 있다.





## 꾸준히 성장하는 베트남 건강보조제 시장

- 고령화, 코로나19로 건강증진 제품 수요 확대
- 미용 및 다이어트 관련 건강보조제 복용하는 여성 소비자 증가

지난해 10월 세계은행(WB)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발간한 ‘베트남: 고령화사회 적응’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2035년이면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후유증 관리 및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보조제 구매가 늘고있다. 시장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2021년에는 8억 9,290만 달러 수준에 달했다.

### 베트남 건강보조제 시장 트렌드

베트남 시장 내 건강보조제는 성분에 따라 크게 허브 성분 제품과 비 허브 성분 제품으로 분류되며, 허브 성분 제품이 전체 시장의 57.8%를 차지하고 있다. 허브 성분의 건강보조제는 알로에, 달맞이꽃종자유, 에키나시아, 크랜베리, 마늘, 은행잎 추출물(징코빌로바), 인삼 등의 제품이 있다. 허브 성분의 건강보조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비허브 성분 제품 장기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허브 성분의 제품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건강식품의 주 소비자층은 노년층으로, 주요 소비 제품은 노화 방지 및 뼈 관리 제품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타민C, 멀티비타민, 홍삼 등의 제품이 인기다.

### 베트남 건강보조제 경쟁 동향

베트남 건강보조제 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많아 높은 시장점유율을 선점하기 어렵고, 신규로 시장 진입시 많은 홍보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브랜드의 비중이 높다. 시장 점유율 1위는 식사 대용 셰이크를 주력으로 한 미국의 허벌라이프(Herbalife)이고 뒤이어 베트남의 트라파코 (Traphaco), 독일의 베로카(Berocca)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있다.

###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면역과 건강에 관심을 갖는 소비습관이 형성되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건강보조제의 소비층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제품군 또한 다양해 지고 있어 베트남의 건강보조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다변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산층 인구의 빠른 증가로 중고가의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으로 한국 제품 저변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현지에서 유명한 한국 건강보조제는 면역 강화를 위한 홍삼 제품이지만 새로운 소비자층을 겨냥한 미용, 다이어트 제품 등으로 품목 다변화를 할 수도 있겠다.





## 베트남 소스, 드레싱 및 조미료 시장동향

- 코로나19에도 베트남 소스, 드레싱 및 조미료 시장은 성장세 지속
- Z세대 중심으로 편의점 수 성장 예상, 신흥 브랜드 노출 기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시장동향

베트남의 소스, 드레싱 및 조미료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억 9,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까지 약 22.74% 증가하여 18억 3,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물론 2021년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된 한 해였으나, 장기간의 베트남 봉쇄 조치로 소비자들의 식품소비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소스, 드레싱 및 조미료 소매 판매 부문에 긍정적인 성장을 보여줬다.

### 수입동향 및 수입규모

2021년 기준 주요 수입국은 태국(29.05%), 중국(12.83%), 한국(12.43%), 일본(11.4%), 말레이시아(10.08%)로, 상위 5개국 이 75.82%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태국의 스리랏차 소스와 혼합조미료, 중국의 굴 소스, 한국의 돈까스 소스, 양념치킨 소스 등 국가별로 특색있는 소스가 주로 수입됐다. 2021년은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스 및 조미료 판매가 성장한 반면, '21년 전체 수입규모는 약 7,689만 달러를 기록하며 '20년 대비 5.19%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소스 및 조미료 수입 대상국 3위를 차지하며 '20년 대비 3.15%의 성장을 기록했다.

### 경쟁동향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소스, 드레싱 및 조미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긍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 Euromonitor 기업별 브랜드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주요 플레이어로는 베트남의 Masan Group Corp 및 Cholon Investment & Import-Export Co (CHOLIMEX), 일본의 Ajinomoto Co Inc, 영국의 Unilever Group 등이 있다.

### 유통구조

베트남 소스, 드레싱 및 조미료 시장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을 포함한 현대 식품 품 소매점과 전통 소매점(소규모 식품점을 포함)과 같은 1) 매장(오프라인) 기반의 소매점, 그리고 전자상 거래를 포함한 2) 온라인 기반의 소매점으로 나누어진다.

### 시사점

아직까지 베트남 소스시장은 추억맛(피시소스)을 기반으로 한 현지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외국계 소스의 경우 웰빙을 추구하고 새로운 문화에 개방적인 MZ세대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소비시장을 MZ세대가 50% 이상 이끄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베트남 소비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품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베트남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 베트남 음료수 시장 동향

- 코카콜라, 7UP 등 외국계 브랜드가 시장 선도
- 저칼로리,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 음료 선호 높아

### 시장 규모 및 동향

2021년 베트남 음료 시장규모는 약 46억 4,400만 리터 규모로 코로나19 여파에도 최근 5개년 연평균 6%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했다. 특히 동기간 생수의 판매 증가율이 연평균 12%로 전체 음료 시장보다 더 빠르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정수 시설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가정 식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직접 음용 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 등에도 생수를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수입규모 및 동향

2020년 기준, 베트남 음료(HS 2202.99) 수입 규모는 약 1억 1,600만 달러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수입국은 한국(36%), 말레이시아(23.3%), 태국(15%)이며, 상위 3개 국가가 2020년 전체 수입액의 74.3%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한국 등의 상위 1~5위 국가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동일 순위를 유지하며 베트남 음료 수입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중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은 3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며 순위가 급상승한 점이 주목된다.

###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베트남 음료시장은 Suntory-Pepsico, THP Group, Coca-Cola Vietnam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과점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7UP, Coca-Cola와 같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와 풍부한 자본을 앞세운 외자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베트남 현지기업 중에서는 THP Group이 13.5%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음료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탄산음료에서는 Coca-Cola(22.3%), Miranda(15.3%), 7UP(14.9%) 순으로 외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RTD 차 음료에서는 Zero Degree Green Tea(27.6%), C2(20.6%) 등 베트남 현지 브랜드가 선전하고 있다.

### 시사점

소득수준 향상과 코로나19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기능성 음료로 베트남 음료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기존에는 덥고 습한 날씨로 기력이 쉽게 소진되어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건강에 유익한 차 음료의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삼, 생강 음료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MZ세대를 흡인하는 화려한 포장이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코카콜라나 펩시 등 대형 브랜드의 경우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특별판, 세계 주요도시를 모티브로 한 시리즈 등 디자인과 패키지를 달리한 특별 에디션을 종종 출시하여 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 베트남에 불어오는 펫 휴머니제이션 열풍

-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 확산으로, 베트남 반려동물 시장 폭발적인 성장
- 펫 리조트, 애완동물 장례서비스 등 다양한 파생 서비스산업 생성

###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시장의 높은 성장세

2021년 기준, 베트남의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시장은 약 7,200만 달러 규모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시장 규모가 무려 80%나 성장했다. 2,775만 마리로 추산되는 반려동물의 개체 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9%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중산층 성장, 급격한 도시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연관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특히, 2018년 ‘개와 고양이 도축 및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이후 개를 식용하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반려동물을 인간 및 가족처럼 대하는 ‘펫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도시 부유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반려동물 건강을 위해 지갑을 여는 베트남 소비자

최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지갑을 여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인티지마켓리서치(Intage Market Research)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시중에서 고가로 유통되는 펫푸드를 반려동물에게 먹이고 있으며 응답자의 83%가 사료 외에 영양 밀크, 비타민 등 별도의 영양보충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펫푸드 및 영양보충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 전문 리조트 등 고급화되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펫호텔, 펫스파, 펫카페 등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출장,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울 때 이용할 수 있는 펫호텔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베트남 내 펫호텔의 경우 대부분 방마다 CCTV가 설치돼 있어 맡긴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의사 및 펫시터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설연휴(Tet)와 같은 긴 연휴 기간에는 평시에 비해 20~30% 이상 수요가 급증한다.

### 시사점

베트남의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람 간 접촉이 감소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펫콕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 과정에서 제품의 원재료, 영양성분까지 꼼꼼히 챙겨보고 있어 영양성분 및 기능을 강조하고 원산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패키징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 용품의 주요 유통경로인 전문 펫샵이 최근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하고 있어 대형 유통망을 확보한 현지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 ▶ 2022 베트남 연례 경제 보고서 컨퍼런스서 3분기가 어려운 시기 될 것으로 예측

경제정책연구원(VEPR)이 주최한 2022 베트남 연례 경제 보고서 컨퍼런스에서 쩌또안탕(Trần Toàn Thắng) 국립 사회경제정보 및 예측 센터 소장은 3분기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 인플레이션 압력과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국가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임. 전문가들은 수입 인플레이션 문제,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중국 경제의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및 기타 가능한 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전면적인 평가 및 시기 적절한 조치를 권고함.

[Vietnam News, 5. 23]

## ▶ 가축사료 가격 인상에 축산업 타격

가축사료 가격 인상으로 2022년 1분기 축산업 수익에 악영향을 미침. VN다이렉트증권(VNDirect Securities Corporation)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옥수수, 콩, 밀 등 가축사료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며 사료산업에 악영향이 미쳤다고 밝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 세계 1위, 3위 밀 수출국으로, 밀 전체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함. 특히,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옥수수 수출국으로 세계 거래량의 22% 차지함. 4월 초 기준, 꽝닌성(Quang Ninh) 까이런(Cai Lan) 항구의 옥수수 수입 가격은 kg당 약 0.4달러(9,200 베트남 동)로 2021년 하반기 대비 20~25% 증가한 가격이며,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함.

[Vietnam News, 5. 19]

## ▶ 하노이, 베트남 성·시 중 전자상거래 지수 2위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2 베트남 전자상거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90.6점으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함. 2위는 전년 대비 30.2점 상승하여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하노이시(85.9점)이며, 다낭시는 36.6점으로 그 뒤를 이음. 올해 베트남 전역의 전자상거래 지수 평균 점수는 20.4로 많은 지역의 전자상거래 지수가 급격히 증가함.

[Hanoi Moi, 5. 19]

## ▶ 베트남, 중국·한국 철강(Coated Steel)에 대한 반덤핑관세 폐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5년 만에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베트남 무역구제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국내 철강 제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관세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이번 조사는 WTO의 현행 규정, 대외무역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입각하여 실시되었다고 전함.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지 5년이 지나 국내 철강 생산 부문이 더 이상 예전만큼 큰 물적피해를 입지 않고 있고,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철강이 국내 생산에 추가 피해를 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결론 지음.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함.

[The Saigon Times, 5. 18]



### ▶ 삼성전자, 하노이 R&D센터 준공

삼성 베트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1일 착공한 하노이 삼성 R&D센터는 지난 5월 14일 기준 70% 준공률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당초 목표인 연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삼성 베트남 관계자는 R&D센터를 통해 AI, IoT, 빅데이터, 5G 등의 분야에서 베트남 인재들의 학습역량을 키워 베트남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총 사업비 2억 달러 규모의 삼성 R&D센터는 정부와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포괄적인 지원으로 2020년 10월 기초 공사가 완료된 바 있음.

[Vietnam Investment Review, 5. 16]

### ▶ 이온몰, 2025년까지 하노이에 3-4개 쇼핑몰 추가 설립 희망

일본의 소매 대기업인 이온몰은 오는 2025년까지 하노이에 대형쇼핑몰 3~4개를 추가 설립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2022년 5월 기준 이온몰은 하노이 롱비엔과 하동지구에 있는 쇼핑센터 2곳을 포함해 베트남 전역에 6개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하노이에 3~4개 쇼핑몰을 추가 완공하고 베트남 전역에 총 16개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임. 이온몰은 2022년 3분기 하노이 황마이점을 착공할 예정이며, 박뜨리엠점 역시 당국과 협의하여 승인이 나는 대로 올해 내에 착공할 수 있기를 희망함. 이에 대해 하노이시 당서기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하노이시 투자 유치를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온몰에서 쇼핑몰 건설을 희망하는 박뜨리엠 부지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 부지로 전환하고 승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부지를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힘.

[VN Express, 5. 15]

### ▶ 5월 15일 자정부터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음성검사지 의무 제출 규정 임시 중단

팜 민 쯔 총리는 2022년 5월 13일자 '베트남 입국 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요건 제공에 대한 긴급 규정'(Circular No. 416/CD-TTg)에 따라 2022년 5월 15일 자정부터 해외에서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결과지 의무 제출 규정 임시 중단을 승인함. 이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요구되던 탑승 전 72시간 내 RT-PCR 음성 결과지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 음성 결과지 제출 의무가 추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지됨. 또한 4월 27일부로 베트남 입국 시 요구되었던 의무 의료 검역신고 역시 폐지됨. 코로나19 RT-PCR,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및 입국 의료 검역 신고가 모두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입국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입국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보건부, 5. 15]

### ▶ 1~4월 베트남 대외교역 16% 증가

베트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1~4월 대외교역액은 전년대비 15.9% 증가한 2,42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함. 외국인투자기업(FIE)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683억 7,000만 달러의 교역액을 달성하였으며, 베트남 국내 기업은 740억 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수출입 부문에서 외투기업 의존도가 높음을 나타냄. FIE는 1~4월에 896억 2,00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1,224억 8,000만 달러의 73.2%임.

[The Saigon Times, 5. 14]



### ▶ 베트남 PVGAS와 미국 AES, Son My LNG 터미널 투자 승인 획득

베트남의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의 자회사인 페트로베트남가스(PVGas)와 미국 에너지 기업 AES는 베트남 중남부의 빈투언(Binh Thuan)성 선미(Son My)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에 대한 투자 승인을 획득함. 베트남 팜 민 쩌 총리 및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장관은 5월 11일 방미 중 워싱턴 DC에 방문하여 미국 상무부 장관 및 두 기업 대표에게 투자 인증서를 전달함. Son My LNG 터미널 용량은 450Tbt, 총 투자액은 약 14억 달러이며 2023년 착공하고, 2026년에 공식 상업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AES 베트남 지사장은 Son My LNG 터미널은 LNG 수입의 중추로 베트남 남부에 LNG를 공급하고 베트남 미래 에너지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Nhan Dan, 5. 13]

### ▶ Viettel, 퀄컴과 5G 기반시설 개발 위해 협업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의 통신 반도체 대표 기업 퀄컴에게 베트남 국방부 산하 국영 통신기업인 Viettel과 함께 5G인프라 개발 및 6G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이번 협력에는 5G 인프라 장비의 설계, 개발 및 5G 테스트, 그리고 5G 네트워크 솔루션 지원, AI 카메라 생산 지원, 전기차 및 스마트 충전시스템 연결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음. 양사는 이번 협력으로 베트남과 전 세계 5G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배포 속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Viettel은 퀄컴과 함께 다중입출력 기능 및 분산장치를 갖춘 차세대 5G 무선 장치 개발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Viettel이 퀄컴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통신 솔루션의 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Hanoi Times, 5. 13]

### ▶ 빈그룹, 사회주택 50만호 공급 계획

빈그룹은 주주총회에서 향후 5년 내 교외 지역에 가구당 3억~9억 5,000만 동(1만 3,000~4만1,200달러)의 분양가를 책정한 50만호의 사회주택\*을 공급 하겠다고 발표함. 빈그룹의 자회사인 빈훙은 ‘해피홈 프로젝트(가제)’를 통하여 총 50헥타르 규모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꽝닌 등의 대도시에서 빈훙 서브 브랜드 사회주택을 건설 및 공급할 계획임. 빈그룹은 2016년 자회사인 빈훙에서 빈시티라는 브랜드로 저가 아파트 30만 채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사회주택이 아닌 저가 상업주택으로 분류됨. 베트남 건설부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택 문제가 두드러졌으며 지난 10월 건설부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 주택 구매를 보조하기 위한 65조 동 규모의 지원을 제안함. 베트남은 2021년 기준 도시지역의 266개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회주택 약 14만 2,000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278개의 사회주택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사회주택: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 공공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며, 주거안정성을 높인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보다는 소득이 높으나 민간임대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VN Express, 5. 12]



### ▶ 베트남, 수산물 수출 44% 급증

미국, 일본 중국은 베트남의 3대 수산물 수입시장임. 이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시장은 중국이며, 고등어, 새우 등 주요 수산물의 수요가 많고 수출 가격이 좋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2022년 4월 베트남이 수산물 수출액은 10억 5,000만 달러 이며, 1~4월 총 수산물 수출액은 35억 7,000만 달러로 2021년 동기대비 43.7% 증가함.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한살 생선류 등 수산물 제품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베트남으로서는 전년 대비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됨.

[Nhan Dan, 5. 10]

### ▶ 베트남, IC 카드 신분증 활용 ATM 현금 인출 시범 운영

베트남 공안국은 IC 카드 기반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함. 기존까지 ATM기에서 현금 인출은 은행 카드와 QR코드로만 가능했으나, IC 카드 신분증을 추가하여 위조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일부 은행은 현금 인출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대신 얼굴 및 지문인식을 포함한 생체 데이터 정보를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함. 하노이시와 꽝닌성의 BIDV와 VietinBank는 IC카드 신분증을 활용한 현금인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머지않아 베트남 전역의 은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Nhan Dan, 5. 10]

### ▶ 베트남 재무부, '22년 6월~9월 현지 조립·생산 자동차 특별 소비세 납부 연기 제안

베트남 재무부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현지에서 조립·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연기를 제안함. 4개월 동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특소세는 약 9조 3,000억 동(4억 320만 8,010달러)~11조 4,000억 동(4억 9,425만 4980달러)으로 추정되며 국내 자동차 기업이 국가 예산에 납부하는 평균 소비세는 월 2조 4,500억 동(1억 405만 3,680달러)에서 2조 8,000억 동(1억 2,139만 5,960달러)임. 베트남 국방부는 올해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조립업체에 대한 새로운 조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베트남 정부포털, 5. 9]



### ▶ 인도 렌터카 플랫폼 줌카(Zoomcar), 베트남 진출

인도의 대표적인 렌터카 플랫폼인 줌카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서비스를 시작함. 2013년 인도 벵갈루루에서 설립된 줌카는 이후 성장세를 거듭해 현재는 인도 렌터카시장의 거물로 성장하였으며 5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하고 300명의 직원이 근무중임. 줌카 관계자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지역중 4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 규모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7%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줌카의 사업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베트남 통계청은 베트남의 자동차 렌트 시장은 2022년까지 5억 5천만 달러에 도달하고, 연평균 10.9% 성장하여 2026년에는 870만 명의 사용자와 8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함.

[VN Express, 5. 8]

### ▶ 농림수산 분야 1분기 수출 전년 대비 15.6% 증가

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MARD)는 올해 1분기 농림수산분야 수출규모는 2021년 1분기 대비 15.6% 증가한 약 179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힘. 이중 농업, 임업, 수산물 수출액은 각각 10.5%, 4.9%, 43.7% 증가한 74억 달러, 59억 달러, 36억 달러에 달함. 검토 기간 동안 주요 수출 품목은 목재(55억 달러, 4.5% 증가), 커피(17억 달러, 59.4% 증가), 새우(13억 달러, 38.6% 증가), 트라피쉬(8억 9,400만 달러, 89.6% 증가), 고무(8억 6,900만 달러, 10.9% 증가), 카사바(5억 7,400만 달러, 29.5% 증가) 등임. 베트남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수입규모 49억 달러, 전체의 27.3%를 차지했으며, 중국(32억 달러), 일본(13억 달러), 한국(8억 2,200만 달러)이 뒤를 이음.

[베트남 정부포털, 5. 5]

### ▶ 베트남 중앙은행(SBV), 대출 금리 인하

베트남중앙은행(SBV)은 현재까지 하노이의 신용기관이 총 227억 달러 규모, 31만 6,000명에 대한 대출 금리를 면제했다고 밝힘. 또한 은행 부문은 베트남중앙은행(SBV)의 대출 금리인하 시행령에 따라 5만 8,400개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26억 달러 규모의 부채에 대한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21만 명에 대해 우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제공함. 현재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단기 대출의 경우 연 5.5~7.5%로 추정되며 중장기 대출의 경우 7.5~8.5%임. 은행들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대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노력중임. 산업별 대출 비율은 중소기업이 전체 대출의 19.2%를 차지하고 농업 관련 기업(9.1%), 수출 기업(5.2%) 및 부품소재 기업(2.4%)이 뒤를 이음.

[Hanoi Times, 5. 4]

### ▶ 베트남, 2021년 전 세계 휴대전화 생산량의 약 20% 차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2억 3,370만 대의 휴대전화를 생산함. 이는 전세계 공급량의 거의 20%를 차지하며 2021년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 생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9.5% 증가한 260억 달러에 이룸. 베트남은 세계 5대 무선통신기기 및 예비부품 생산국으로 2021년 무선통신기기 및 예비 부품의 수출액은 5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하여 국가 전체 수출규모의 17.1%를 차지했으며, FDI 기업 중 삼성의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 생산량은 베트남 전체의 약 60%를 차지함.

[베트남 정부포털, 5. 4]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하이즈엉성 스마트 수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응에안성 Khe Go Lake 수상태양광 투자건설
  - 응에안성 Vuc Mau Lake 수상태양광 투자건설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하이즈엉성 스마트 수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b>발주처</b>	○ 기관명 : NAWAPI (National Center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Investigation)
<b>프로젝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Hai Duong성</li> <li>○ 규모 : 약 20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li> <li>○ 프로젝트 단계 : 계획, '23년 입찰 예정</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 데이터 수입, 정보처리, 사용량 분석 등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li> <li>- 센서, 계량기, 펌프, 누수감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포함</li> <li>- 고객별 물 사용량 분석 및 데이터 제공(어플, 전화문자 등)</li> </ul> </li> </ul>

- 응에안성 Khe Go Lake 수상태양광 투자건설

<b>발주처</b>	○ 기관명 : Nghe An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b>프로젝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Nghe An성 Quynh Luu군</li> <li>○ 규모 : 약 178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재원 : PPP</li> <li>○ 프로젝트 단계 : Pre F/S완료('22.3월)</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te are : 303.48 ha</li> <li>- Capacity : 250 MWp</li> <li>- Voltage : 110kV</li> <li>- Power generation(1st year) : 339.129 mil KWh</li> </ul> </li> </ul>



**(입찰정보)**

□ 응에안성 Vuc Mau Lake 수상태양광 투자건설

<b>발주처</b>	○ 기관명 : Nghe An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b>프로젝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Nghe An성 Quynh Luu군</li> <li>○ 규모 : 약 160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자원 : PPP</li> <li>○ 프로젝트 단계 : Pre F/S완료('22.3월)</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te are : 216.3 ha</li> <li>- Capacity : 200 MWp</li> <li>- Voltage : 220kV</li> <li>- Power generation(1st year) : 265.8 mil KWh</li> </ul> </li> </ul>

<끝>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이종호 한국무역보험공사 하노이 지사장

### ■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여기 하노이에서는 주로 ‘KSURE(케이슈어)’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식 영문명칭은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무보’라고 불립니다. 이 것도 정식 명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으로도 ‘KSURE(케이슈어)’, ‘무보’에 대한 생소함을 해소해 드리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실례로 공사 직원이 부모님께 ‘한국무역보험공사’ 입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보험회사에 다니게 되었구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KSURE(케이슈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종의 보험회사이긴 합니다. ‘92년 7월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적(official) 수출신용 지원기관으로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험 및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주요 대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유명 대기업은 거의 대부분 ‘KSURE’를 통해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출 대금을 못 받을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총 167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그린, 디지털 및 신산업 관련 일반 상품수출, 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등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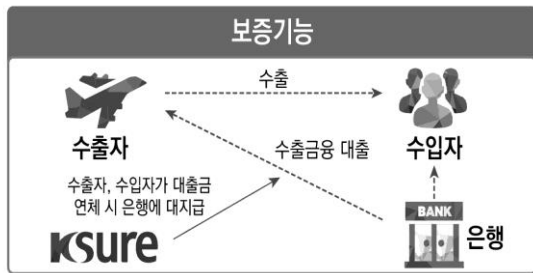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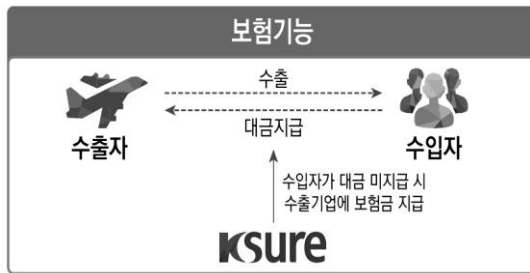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요 기능은,

- ①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 ② 수출기업에게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무역보험의 핵심기능 : 대외위험 보장기능(보험) + 금융조달기능(보증)



③ 또 하나의 주요 기능이자 고객센터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입니다.

KSURE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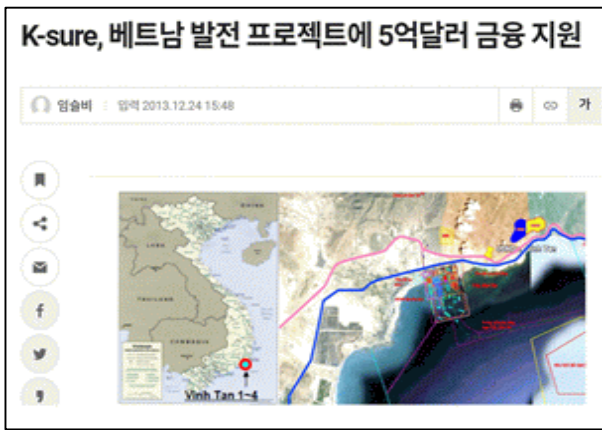
수입자의 신용정보와 관련해서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었던 수입자의 과거 결제 경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거래 경험이 좋지 못했던 수입자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 실적은,

‘21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 및 투자와 관련하여 무역보험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4조 4,677억 원이며, 이 중 4조 3,006억원은 일반 상품 수출에 대한 대금미회수 위험 회피를 위한 보험 이었고 1,579억 원은 베트남내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용 보증지원이었습니다.

KSURE의 베트남 지원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 3조 9천억원, ‘20년 4조원이었고 ‘21년에 4조 4천억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는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 증가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KSURE는 베트남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Song Hau 1, Vinh Tan 4, 수산 인더스트리 태양광 발전, LG 디스플레이 생산법인 설립 등에 거액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SURE는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ESG 가치창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소정의 기금을 지원하였으며 베트남 농촌지역의 다리 건설을 위한 ‘플랜들리 브릿지’ 건설 후원금도 기탁한 바 있습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하노이지사는,

우리 하노이지사는 ‘19년 9월에 개소된 파릇파릇한 신생 지사입니다. 수입자 신용조사, 부실채권 회수 등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설립 4년차로서 그간 닦아놓은 기반을 자산으로 하여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고유 업무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끝>





## 한-베트남 미래산업 상생협력 포럼

###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4.26(화) 14:00~16:00(VST) / 롯데호텔 그랜드볼룸 A, B
- 참가자 : 양국 정부, 유관기관, 한국 및 베트남 기업인 등
- (현장)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현지 진출기업 등 120명 / (온라인) 영상 조회수 729회(5월 10일 기준)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00~14:03(3')	개회사	KOTRA 유정열 사장
14:03~14:06(3')	환영사	베트남 산업무역부 도탕하이 차관
14:06~14:09(3')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박노완 대사
14:09~14:12(3')	축사 (영상)	주한 베트남 대사
14:12~14:15(3')	기념사진 촬영	
14:15~14:35(20')	베 산업동향, 기후변화 등 협력 확대 방안	(베) 중앙경제연구소 응우웬화끄영 부원장
14:35~14:55(20')	한-베트남 미래산업 협력 발전 방향	(한) KIEP곽성일 박사
14:55~15:25(30')	미래산업 협력 방안(소재부품·공급망)	(베) 산업무역부 응오카이호안 부청장
	미래산업 협력 방안(IT 산업)	(베) 정보통신부 응우웬타잉뚜옌 부국장
15:25~15:45(20')	미래산업 상생협력 방안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민문기 상무관
15:45~14:00(15')	현지 투자기업 성공사례(전자부품)	(주) 캄시스 박영태 대표

<현장사진(좌), 온라인 캡처 화면(우)>





KOTRA 유정열 사장 개회사



산업무역부 도탕하이 차관 환영사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박노완 대사 환영사



VIP 단체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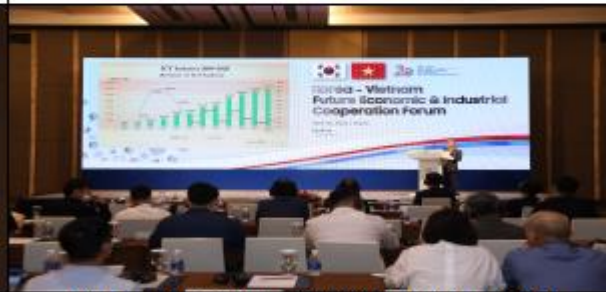
(세션1) 중앙경제연구소 응우웬화끄엉 부원장



(세션2) KIEP 곽성일 박사



(세션3) 산업무역부 공업청 응오카이호안 부청장



(세션4) 정보통신부 응우웬타잉뚜옌 부국장



(세션5)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민문기 상무관



(세션6) 캄시스 박영태 대표이사



## 베트남 법상 담보설정 및 처분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지사장,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 1. 서설

베트남에서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유동화를 진행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베트남에서 또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계약은 본계약과 함께 혹은 별도의 담보계약을 통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베트남 민법 제343조)

담보설정의 대상이 되는 담보목적물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 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성될 자산도 포함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증, 인증, 등록, 등기 되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의 담보설정 및 처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베트남의 담보설정 및 처분

#### 가. 담보 목적물

담보 설정을 위한 담보목적물은 일반적인 자산을 의미하지만 향후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a. 담보물은 담보물권 또는 소유권 유보부 자산을 제외하고는 담보채무자의 소유여야 함
- b. 담보물은 일반적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반드시 식별가능해야 함
- c. 담보물은 존재하는 자산이거나 향후 형성 예정인 자산이어야 함
- d. 담보물의 가치는 담보채무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일치할 수도 있음.

위와 같은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베트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담보는 부동산(토지사용권, 건물 등), 동산(자동차, 공장설비 등) 및 유가증권(주식, 지분, 채권 등) 등이 있습니다. 담보설정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하며, 반드시 기초거래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법인이 대출을 진행하면서 베트남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한국 투자자가 대출을 진행하며 베트남 법인이 해당 대출을 보증하고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한국 투자자가 대출을 진행하며 베트남 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가장 차이가 있는 점은 부동산 담보의 경우 베트남 법상 일반 사인은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담보의 취득은 은행 및 금융기관만이 가능합니다. 동산의 경우 가치변동, 감가상각 멸실 등의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담보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금융기관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큰 제약사항으로 작용됩니다. 즉, 개인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개인의 주택,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은 베트남 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나. 담보의 처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의 이행이 부적절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자산을 처분하고, 해당 처분으로 발생한 금원으로부터 자신의 채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자와 담보권자는 담보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담보실현 방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률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경매를 통한 담보처분
- b. 담보권자의 담보물 직접판매
- c. 담보권자의 담보물의 직접인수를 통한 채무이행
- d. 기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처분방법

#### 다. 담보등록의 필요성

담보물이 수개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제공된 경우 해당 담보목적물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금원은 아래와 같은 순위로 결정됩니다.

- a. 모든 담보가 담보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각 순위에 따라 담보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 b. 일부 담보권자는 담보등록을 하였으나, 일부 담보권자는 담보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권을 등록한 담보권자가 선순위 변제

따라서 담보계약을 체결하셨다 하더라도 변제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보등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보등록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 라. 담보 처분의 절차

담보처분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a. 담보권 실행 통지
- b. 담보권 실행을 위한 담보물 제공 (확보)
- c. 담보 실행을 통해 발생한 금원의 지급

위 담보처분 순서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담보물 제공 절차입니다. 담보물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력을 통해 담보물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확정판결 및 집행을 통해 담보물을 확보하여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3. 소결

채권 보전을 위한 소송절차가 베트남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은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담보등록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형식적 정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으시는 경우 담보등록을 반드시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담보는 자동차, 기계설비,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법률상 인정되기 어렵기에 사전에 권리보호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 아무 데나 찍으면 안 돼?! - 베트남식으로 인감 날인, 간인, 이니셜 하기에 대해 -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 관련 서류에 실제 서명을 하지 않고 서명 도장을 찍었다가 세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밤새워 서명한 경우도 있고,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 담당자가 서명한 문서의 효력에 대해 소송에서 하나의 사안으로 다투기도 한다.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기획투자부(DPI)에 서류를 제출한 홍길동 대리는 투자자인 한국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만 찍고 서류를 제출했다가 대표의 서명이 없다고 반려되었다. 다시 대표의 서명을 받고 법인 인감도 찍어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인감 부분이 대표자 서명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서류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니 이번에는 서류 내용의 오타 때문에 또 서류를 보완해야 했다. 법인 설립은 그만큼 지연되었고, 홍 대리는 여러 번 회사 대표에게 서명을 받으며 질책을 당했다.

한국은 서명 없이 법인 인감만 날인하고, 미국은 법인 인감 도장 없이 서명만 하는 등, 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서류에 인감 날인, 간인, 이니셜을 하는 것은 나라별로 다르다. 이렇게 법인 인감만 날인하거나, 서명만 하거나, 법인 인감과 서명을 하더라도 서로 겹치게 하지 않아서 다시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문서를 재송부해야 경우도 발생하니 베트남식 날인과 간인에 대해 미리 숙지해야 하기를 권한다. 또, 인도와 중국 등에서는 수 분~수 시간 후 글씨가 사라지는 펜(기화펜, 자동 퇴색펜)으로 작성한 계약서의 숫자나 서명이 변경되어 피해를 본 한인 기업의 사례도 있으니, 이를 반면교사(反面教師) 삼아 직접 펜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계약 체결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는 그 회사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 자의 행위를 통해 계약행위를 하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자의 서명만을 기재하는 것은 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서명을 한 개인과의 계약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고, 법인 인감만 찍는 경우도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에는 대표자의 서명과 함께 법인인감도 찍는데, 인감은 서명 왼쪽 기준 1/3을 겹치게 찍는다.

[정부 기관의 사무 업무 관리를 위한 세부 안내 시행령(Decree 30/2020/ND-CP) 제33.1조]



- 종이 문서에 서명 시 파란색 잉크 펜을 사용하고, 바래기 쉬운 잉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정부 기관의 사무 업무 관리를 위한 세부 안내 시행령(Decree 30/2020/ND-CP) 제13.6조]
- 정부 기관의 사무 업무 관리를 위한 세부 안내 시행령(Decree 30/2020/ND-CP)은 사기업의 문서가 아닌 정부 기관, 국영기업, 정치·사회단체에만 적용된다. 정부 기관의 문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쉽게 사본과 구분이 되어, 베트남에서 민·관(民·官) 모두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계약서, 영수증 등 문서의 서명은 거의 대부분 파란색 펜으로 한다. (사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검은색이 아닌 컬러 펜으로 서명한다). 다른 색깔로 서명하는 경우 다시 파란색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서명은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이니셜을 하는 이유는 (i) 내부 규정상 각 단계별 검토자의 확인이 필요해서[예: 재무부 실무 규정에 대한 결정문(Decision 688/2020/QD-BTC) 제13조] (ii) 여러 장의 문서를 하나의 계약서로 특정하거나 (iii) 좀 더 명확하게 각 장을 검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 여러 목적이 있다.

- 간인(間印):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圖章)을 찍음.
- 날인(捺印): 도장을 찍음.
- 기명날인(記名捺印):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 서명날인(署名捺印): 법률 문서에 이름 또는 상호를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일.
- 이니셜(initial)/약자(略字): 여러 글자로 된 말의 일부를 생략하여 만든 글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사전]

<베트남식 간인 예제>



<베트남식 서명 날인 예제>



<베트남식 이니셜 예제>





## 베트남 구조조정 가이드북

KOTRA

### I.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철수 개요

#### 1.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형

- ① 한국 기업이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 ②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이 합작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 ③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 ④ 기존 베트남 법인의 지분·주식 인수
- ⑤ 동업계약

#### 2. 베트남 투자 철수 유형

##### 가. 베트남 현지법인 투자 철수

위 ① 내지 ④의 투자 방식, 즉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보유하고 해당 현지법인을 통해 베트남에서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a) 한국 투자자가 보유한 현지법인 또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주식의 양도
- (b) 현지법인의 자산 매각과 휴업
- (c) 현지법인 해산(청산)
- (d) 현지법인 파산

##### 나. 동업계약(BCC) 유형 투자 철수

위 ⑤와 같은 동업계약(BCC) 방식의 투자 철수는 기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방법 기타 동업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 베트남 구조조정 가이드북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내 보고서(심층)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 베트남 중북부 유망 투자지 - 타잉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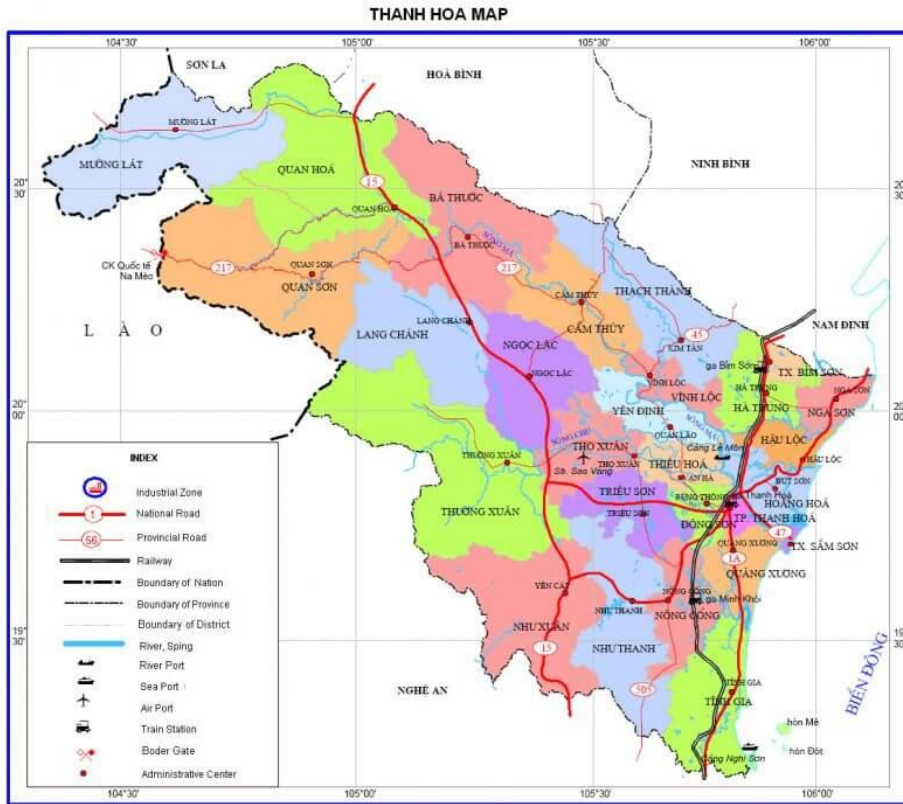
### □ 타잉화(Thanh Hoa)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 11,115km<sup>2</sup>      ▪ 인구 : 3.7백만 명('21년)</li> <li>도시거주 비율 : 23.3%('20년)</li> </ul>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잉화성은 베트남의 중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선라(Son La)성, 화빈(Hoa Binh)성, 닌빈(Ninh Binh)성, 서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는 북부 걸프(102km길이의 해안선), 남쪽으로는 응에안(Nghe An)성과 인접해 있음</li> </ul>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잉화성은 5가지의 교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음</li> <li>① 도로(1A 국도, 호치민 로드) ② 타잉화 철도 ③ 내륙 수로[마강(Song Ma)]</li> <li>④ 해로[응이선(Nghi Son) 심해항구] ⑤ 항공[터수안(Tho Xuan) 국제공항]</li> </ul>
GRDP 성장률 / 1인당 GDP('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대비 GDP 성장률 : 8.85%</li> <li>성 1인당 GDP : US 2,496 달러/년</li> </ul>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수출액 : US 53.39억 달러 / 총 수입액 : US 66.16억 달러</li> <li>산업별 성장률 : 공업/건설업(15.66%), 서비스업(3.59%), 농수산업(3.58%)</li> </ul>
산업구조('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건설업 : 46.64%, 서비스업 : 30.82%, 농수산업 : 16.07%</li> </ul>
노무여건('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 60.7%</li> <li>노동가능연령 인구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 70.02%</li> <li>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 27.6%</li> </ul>
최저임금('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잉화시, 싘선(Sam Son)시, 빔선(Bim Son)군, 띠자(Tinh Gia)현, 동선(Dong Son)현, 광쓰엉(Quang Xuong)현: VND 3,430,000= US 150 달러(3급지)</li> <li>타지역: VND 3,070,000= US 134 달러(4급지)</li> </ul>
외국인투자 ('21.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잉화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167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47억 달러 규모</li> <li>(한국) 37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6.23억 달러를 투자하여, 타잉화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2위 규모</li> </ul>



## □ 투자환경

### ○ 접근성 및 물류 인프라



#### (도로)

- 총 길이는 약 24,213km로 그 중 13개 국도의 길이가 1,297km 이고 61개의 성도로 길이가 1,465km 이며, 농촌 도로 시스템의 길이가 18,533km 임. 1A 국도, 217번 국도, 호치민 도로와 같은 여러 국도 간선도로가 타인화성을 관통함

#### (항구)

- 타인화 항구에는 총 길이가 약 4,681m인 26개의 부두(길이가 2,881m인 13개의 일반 부두, 길이가 1,800m의 13개의 특수 부두)와 7개의 부유식 부두가 있음. 2021년에는 4,25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기록됨

#### (내륙수로) 총 길이는 1,889km 임

#### (철로)

- 타인화성을 관통하는 남북 철도의 길이는 103km이며 타인화역 및 빔선(Bim Son)역 등 10개의 역을 통과함

#### (항공)

- 터수안(Tho Xuan) 공항은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주당 87편으로 8개의 노선 운영 중

#### (국제국경관문)

- 나메우(Na Meo) 국제국경관문은 라오스와 많은 아세안 국가들과 연결됨



○ 관광

102km의 해안선과 1,535개 이상의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역사·문화 유적지를 보유한 타인화성은 관광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관광 유형인 영적·문화 관광, 해상 관광, 생태 관광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쌘선(Sam Son)



푸르엉(Pu Luong) 자연보호구역



벤엔(Ben En) 국립 공원



수안리엔(Xuan Lien) 자연보호구역

○ 인센티브 지원 정책(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됨)

1. 토지세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제 46/2014/ND-CP 의결서(2014.05.15)에 따름

- 산업단지:

- 기본 건설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최대 3년간), 관할 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 발행일로부터, 기본 건설의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 후에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이후 3~15년간 면제
-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투자시 또는 특별 우대 투자 분야의 프로젝트에 투자시: 전체 임대 기간 동안 면제

- 경제구역:

- 기본 건설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최대 3년간), 관할 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 발행일로부터, 기본 건설의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 후에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이후 11~19년간 면제
- 개인 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 50% 감면





## 2. 법인 소득세

\* 법인소득세에 관한 법률 세부규칙 및 시행령 제 218/2013/ND-CP 의결서(2013.12.26))에 따름

\*\* 투자법 안내 제 31/2021//ND-CP 의결서(2021.03.26.)에 따름

구분	투자지역	법인세	감면, 면제 기간
산업단지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역(타잉화시): - 레몬(Le Mon) 공단 - 단흐엉(Dinh Huong)-떠이박가(Tay Bac Ga) 공단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없음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 투자 우대 지역: - 타익꽁(Thach Quang)공단-타익타인(Thach Thanh)현 - 람선(Lam Son)-사오방(Sao Vang)공단-터수안(Tho Xuan)현 - 빔선(Bim Son)공단-빔선(Bim Son)군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 응옥락(Ngoc Lac)공단-응옥락(Ngoc Lac)현 - 바이짜잉(Bai Tranh)공단-느수언(Nhu Xuan)현	첫 15년간 세율 10%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경제구역	응이선(Nghi Son) 경제구역	첫 15년간 세율 10%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 3. 수입세

\* 수입세 및 수출세법의 정부의 세부규칙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에 대한 제 134/ND-CP 의결서 (2016.09.01)에 따름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생성을 위한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한 5년간 면세



## □ 외국인 투자현황

### ○ 외국인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타인화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167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47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음.

### ○ 한국계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타인화성 내 한국투자는 37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6.23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으며, 타인화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 1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위 규모임.

### ○ 타인화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응이선(Nghi Son) 석유화학정유단지	정제된 석유 제품 생산	쿠웨이트, 일본	90억
2	응이선(Nghi Son) 2 BOT 화력 발전소	화력발전	일본, 한국	28억
3	응이선(Nghi Son) 시멘트 공장	시멘트, 석회 및 석고 생산	일본	6.22억
4	Annora 신발 공장 - 응이선(Nghi Son) 경제구역	가죽 신발	타이완	1.36억
5	Intco Medical Viet Nam Co., Ltd	의료기기 생산	싱가포르	1.2억
6	Thanh Hoa Tianyu Environmental Energy Co., Ltd	전기 생산용 생활 폐기물 소각장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0.9억
7	Vietnam - Taiwan Sugar Co., Ltd	설탕 및 식품 효모 생산	타이완	0.825억
8	Sakurai Viet Nam Co., Ltd	의류	일본	0.722억
9	North Continental Oils & Fats Vietnam Co., Ltd (Nortalic)	식용유 생산	싱가포르	0.715억
10	Newhope Singapore Pte. Ltd	돼지 농장	싱가포르	0.7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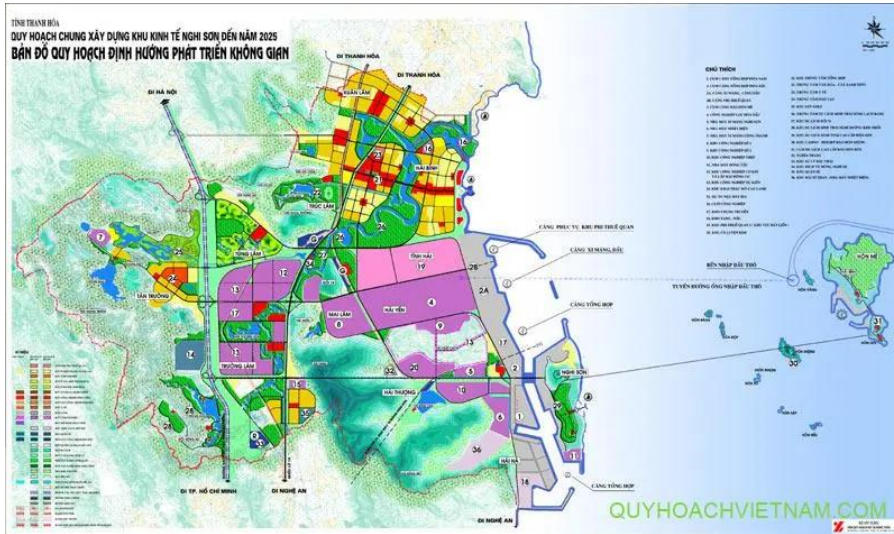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ha)	위치	투자 유치희망 분야	투자자 / 개발사
1	레몬 (Le Mon)	1998	87.61	타잉화성의 첫 번째 공단, 타잉화시와 국도 1A에서 5km, 레몬 항구에서 1km, 응이선 항구에서 60km 떨어져 있음	*입주율: 100% 첨단기술, 전자부품, 소비재, 신발, 의류, 동물사료, 건축자재 등	응이선(Nghi Son) 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2	빔선 (Bim Son)	2005	566	타잉화성의 북쪽 및 1A 국도 근처에 위치해 있음. 타잉화시 도심에서 35km, 하노이에서 120km, 하이퐁 항구에서 150km 떨어져 있으며, 남북 철도가 관통함	섬유, 신발,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계 공학, 고급 건축 자재, 철조물 생산, 전자, 하이테크 제품, 수출용 농림업 제품 가공 등	지역A: • Fuhucorp JSC • Thanh Hoa Investment Development JSC 지역B: • HUD4 Investment and Construction JSC
3	딘후엥 (Dinh Huong) - 띠이박가 (Tay Bac Ga)	2002	180	타잉화시의 북쪽 및 1A 국도 근처에 위치해 있음. 도심에서 2km, 레몬 항구에서 7km, 남북 철도역에서 3km 떨어져 있음	고품질 산업재 생산	Fuhucorp JSC
4	람선 (Lam Son) - 사우방 (Sao Vang)	2016	592.3	타잉화시의 서쪽에 위치하며 도심에서 40km 떨어져 있음. 터수안 공항, 호치민 도로 및 47번 국도 근처에 위치해 있음	전자 부품 제조, 통신 장비, 전기 및 전자 장비 조립, 하이테크 등	Mien Trung Construction Group JSC
5	바이짜잉 (Bai Tranh)	2013	179.03	투자 유치 중		응이선 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6	응옥락 (Ngoc Lac)	2017	150			
7	탁익짱 (Thach Quang)	2013	150			



○ 응이선(Nghi Son) 경제구역 정보



타잉화성의 남쪽에 위치하며, 106,000ha(본토 및 섬 66,498ha, 수면 39,502ha 포함)의 자연 면적을 가지고 있음. 타잉하시에서 40km, 하노이 수도에서 남쪽으로 190km 떨어져 있음.

타잉화성은 석유화학, 고급 철강 압연, 기계 공학, 전기, 건축 자재, 소비재 생산, 가공 및 수출, 도시권 및 관광 지역 건설 등 응이선 항구의 건설 및 개발과 같은 중공업이나 혹은 기초산업에 중점을 둔 일반경제 구역 건설 추진 목표가 있음.

□ 투자 유망분야

- 가공 및 제조 산업,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제조
- 첨단 농업
- 무역, 서비스, 물류
- 관광
- 고품질 의료
- 인프라, 도시 및 훈련 개발, 인적 자원 개발

□ 타잉화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타잉화성 투자, 무역 및 관광진흥센터	Mr. Le Nhu Nam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 +84-962 086 826</li> <li>• Email: nam21thanhhoa@gmail.com</li> <li>• Website: investinthanhhoa.gov.vn</li> </ul>
응이선(Nghi Son) 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 +84-2373 617 235</li> <li>• Email: bqkktns@thanhhoa.gov.vn</li> </ul>

타잉화성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하기 링크로 간단히 문의주시면 됩니다.

○ 링크주소 : <https://forms.gle/EdrXPV71m1jpsj3RA>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2. 4. 20 기준 누계		2022. 1. 1 ~ 4.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272	78,659.76	85	101.69	1,823.49
일본	4,835	64,550.99	48	255.96	747.53
싱가포르	2,885	68,427.07	58	793.56	3,111.64
대만	2,859	35,944.23	24	236.1	435.55
홍콩	2,067	28,543.91	28	196.71	595.63
버진아일랜드(영)	884	22,089.21	7	40.45	110.79
중국	3,380	22,139.35	60	495.43	1,074.00
말레이시아	672	12,849.47	7	0.45	6.92
태국	653	13,108.24	9	17.36	149.19
네덜란드	384	13,574.48	7	15.62	643.68
미국	1,158	10,471.62	24	128.05	169.43
기타	5,842	54,233.75	97	1,415.80	1,945.85
전체 합계	34,891	424,592.08	454	3,697.19	10,813.6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2. 4. 20 기준 누계		2022. 1. 1 ~ 4.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652	251,394.41	117	2,458.66	6,184.96
2	부동산경영	1,023	65,142.86	20	661.96	2,817.71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80	36,462.38	3	91.16	194.94
4	호텔, 외식서비스	896	12,727.02	4	0.87	21.74
5	건설	1,774	10,951.29	8	89.61	123.44
6	도소매, 유지보수	5,685	9,648.52	130	65.43	667.78
7	물류운수	933	5,879.67	13	100.83	115.35
8	채광	109	4,900.37	1	1.98	18.78
9	교육, 양성	607	4,440.35	3	4.39	10.24
10	정보통신	2,518	4,361.76	59	100.93	136.28
11	과학기술, 전문활동	3,868	4,233.52	82	85.26	357.46
12	농, 임, 수산	520	3,742.51	5	12.67	16.91
13	예술 오락	137	3,416.24	-	-	0.17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3	2,908.70	1	0.45	8.27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742.79	-	-	2.58
16	행정, 지원 서비스	523	994.68	6	0.85	10.94
17	금융, 은행, 보험	79	912.57	1	22.05	125.18
18	기타서비스	145	721.35	1	0.1	0.92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4,891	424,592.08	454	3,697.19	10,813.6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4(누계)
수 출	2,641.8	2,826.5	3,363.1	1,224.8
수 입	2,530.7	2,627	3,322.3	1,199.5
무역수지	111.1	199.5	40.8	25.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4(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378	51,183	57,537	20,663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35,925	44,576	50,828	17,707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303	27,193	38,344	13,681
섬유/직물제품	32,850	29,809	32,753	11,831
신발류	18,320	16,791	17,751	7,317
원목 및 목제품	10,647	12,371	14,809	5,595
철강제품	4,210	5,258	11,795	1,606
수송수단 및 부품	8,505	9,090	10,616	3,849
수산물	8,543	8,412	8,886	3,649
원사(Yarn)	4,176	3,736	5,612	1,934
기 타	71,332	74,235	87,379	34,648
합 계	264,189	282,654	336,310	122,48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4(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51,353	63,971	75,440	21,728
기계/플랜트 및 부품	36,748	37,251	46,296	14,35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4,615	16,645	21,434	7,376
의류(원단)	13,276	11,875	14,324	5,048
플라스틱 원료	8,991	8,397	11,685	4,443
각종 철강	9,507	8,066	11,523	4,181
기타 비금속	6,385	6,052	8,611	3,191
플라스틱 제품	6,538	7,274	7,959	2,627
화학제품	5,419	5,741	7,627	2,982
화학물질	5,128	5,016	7,735	3,251
기 타	95,110	92,412	119,600	50,770
합 계	253,070	262,700	332,234	119,95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4(누계)
1	미국	47,526	61,347	77,077	96,293	36,203
2	중국	41,268	41,414	48,905	56,009	17,916
<b>3</b>	<b>한국</b>	<b>18,205</b>	<b>19,720</b>	<b>19,107</b>	<b>21,945</b>	<b>8,325</b>
4	일본	18,851	20,413	19,284	20,128	7,394
5	홍콩	7,955	7,156	10,437	11,996	3,484
6	네덜란드	7,076	6,881	6,999	7,686	3,120
7	독일	6,869	6,555	6,644	7,286	2,889
8	인도	6,542	6,674	5,235	6,259	2,836
9	태국	5,494	5,272	4,917	6,161	2,389
10	영국	5,776	5,758	4,955	5,765	1,935
	기타	77,921	82,999	79,094	96,782	35,989
	합계	243,483	264,189	282,654	336,310	122,48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4(누계)
1	중국	65,438	75,452	84,187	109,874	38,081
<b>2</b>	<b>한국</b>	<b>47,497</b>	<b>46,935</b>	<b>46,895</b>	<b>56,155</b>	<b>22,364</b>
3	일본	19,011	19,526	20,341	22,648	7,915
4	대만	13,228	15,173	16,701	20,772	8,167
5	미국	12,753	14,365	13,713	15,270	4,601
6	태국	12,023	11,656	10,968	12,564	4,423
7	말레이시아	7,450	7,291	6,575	8,148	3,254
8	오스트레일리아	3,984	4,456	4,677	7,946	2,942
9	인도네시아	4,918	5,703	5,382	7,587	2,812
10	인도	4,147	4,538	4,435	6,950	2,621
	기타	46,238	47,975	48,826	64,320	22,770
	합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119,95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4(누계)
수출	48,629(1.8)	48,178(-0.9)	48,510(0.7)	56,729(16.9)	22,080(29.2)
수입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9,348(17.2)
무역수지	28,997	27,107	27,931	32,763	12,731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4(누계)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6(22)	5,586(40.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4,300(41.4)
석유 제품	1,976(-0.6)	2,196(11.2)	1,196(-45.5)	1,157(-3.2)	816(13.4)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1,559(274.9)
무선통신기기	2,631(-19.9)	2,932(11.4)	3,460(18)	3,315(-4.2)	1,057(47.2)
기구부품	2,332(-10.7)	2,230(-4.4)	2,241(0.5)	2,405(7.3)	921(-14.9)
철강판	1,049(6.5)	1,157(10.4)	1,052(-9.1)	1,267(20.4)	398(1.9)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8)	1,174(5.3)	377(6.4)
자동차부품	474(23.3)	668(40.9)	673(0.8)	924(37.3)	373(22.5)
편직물	1,107(-1)	996(-10)	851(-14.6)	931(9.4)	310(3.2)
기타	16,341	16,465	15,255	17,065	6,383
합계	48,622	48,178(-0.9)	48,511(0.7)	56,729(16.9)	22,080(29.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4(누계)
무선통신기기	4,838(22)	5,691(17.6)	4,980(-12.5)	5,579(12)	2,343(28.6)
의류	3,570(24.2)	3,646(2.1)	3,145(-13.7)	3,393(7.9)	1,198(6.4)
컴퓨터	539(-3.7)	679(25.9)	1,270(87.1)	1,659(30.6)	837(9.6)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4(-4.4)	406(-5.2)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306(24.0)
산업용 전기기기	417(31.5)	479(14.8)	574(20)	725(26.2)	299(24.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4)	1,197(5.2)	1,027(-14.2)	876(-14.7)	298(23.4)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225(23.2)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258(5.4)
영상기기	364(-9.1)	356(-2)	406(14)	460(13.2)	190(7.3)
기타	6,164	6,331	6,474	8,161	2,988
합계	19,643(21.4)	21,072(7.3)	20,579(-2.3)	23,966(16.5)	9,348(17.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1년(연간)	%	7.6	5.6	3.1	3.7	2.6	
	2021년 4Q	%	6.1	3.1	3.6	5.0	5.2	
	2022년 1Q	%	3.7	3.0*	5.0	5.0	5.0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121.8	N/A	118.1	N/A	4.8
		2022년 3월	-	120.7	21.8	126.6	N/A	8.5%
		2022년 4월	-	N/A	92.4	N/A	N/A	9.4%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1년(연간)	-	50.7	N/A	112.1	51.7*	N/A
		2022년 3월	-	50.1	53.2	122.3	51.3	51.7
		2022년 4월	-	50.3	54.3	N/A	51.9	54.7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1년(연간)	-	102.1	N/A	90.5	98.4*	N/A
		2022년 3월	-	106.7	N/A	148.2	111.0	N/A
		2022년 4월	-	106.5	N/A	N/A	113.1	N/A
	소매판매	2021년(연간)	-	90.7	N/A	135.5	198.1*	3.8%
		2022년 3월	-	N/A	2.1%	148.2	205.3	9.4%
		2022년 4월	-	N/A	1.9%	N/A	219.3	12.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2.3	4.5	2.5	106.5*	1.8
		2022년 3월	%	5.4	4.0	2.2	109.0	2.4
		2022년 4월	%	5.4	4.9	N/A	110.0	2.6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1년(연간)	%	118	N/A	5.6	N/A	9.2(누계)
		2022년 3월	%	21.9	N/A	4.1	4.1	△12.1(누계)
		2022년 4월	%	N/A	N/A	N/A	N/A	△11.7(누계)
고용	실업률	2021년(연간)	%	2.6	N/A	4.6	N/A	4.0
		2021년 4Q	%	2.5	6.9	4.3	N/A	3.6
		2022년 1Q	%	2.2	6.2	4.1	N/A	2.5
무역	수출증가율	2021년(연간)	%	19.1	N/A	26.0	41.9	19.0
		2022년 3월	%	13.9	5.9	25.4	44.4	48.2
		2022년 4월	%	19.5	N/A	20.7	47.8	25.0
	수입증가율	2021년(연간)	%	20.4	N/A	23.3	38.6	26.5
		2022년 3월	%	21.9	57.7	29.9	30.1	28.7
		2022년 4월	%	24.4	N/A	22.0	22.0	15.5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 베트남 스마트팜 온라인 수출상담회

KOTRA 하노이무역관에서는 「베트남 스마트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간 : 2022. 6. 20.(월) ~ 6. 24.(금)
- 방식 : 온라인 상담회 (Zoom 활용, 통역제공)
- 대상품목 : 공조, 제어 등 솔루션, 온실시공/운영, 관련 기자재 등 스마트팜 전 분야
- 모집기간 : 2022. 5. 23.(월) ~ 6. 3.(금)
- 선정방식
  - 온라인 접수 후 품목 적합도, 바이어 매칭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제품 또는 기업 소개자료(영문 또는 베트남어) 필수, 사업신청 시 첨부 요망
- 문의처 : KOTRA 하노이무역관 박주호 과장
  - 연락처 : +84-24-3946-0511
  - 이메일 : joohopark@kotra.or.kr



클릭하여 신청글로 이동



## 신남방 3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비즈니스 현장 점검 웨비나

2022. 6.29(수) 14시~17시(한국시간)  
온라인 개최 YouTube kotra 비즈니스 채널

□ 프로그램

시간(한국기준)	내용	연사
14:00~14:05 (5')	인사말씀	이종섭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14:05~14:20 (20')	베트남 상반기 주요경제이슈 및 하반기 전망	박민준 운영팀장
14:20~14:40 (20')	베트남 통관애로사례 및 FTA활용방안	김태윤 관세사
14:40~15:00 (20')	신용보증기금 해외진출기업 보증지원 안내	전보건 신보 소장
15:00~15:20 (20')	인도네시아 경제동향 및 진출전략	이종윤 무역관장
15:20~15:40 (20')	'22년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현황 및 진출전략	김경현 PT. MERDIS 사장
15:40~16:00 (20')	'22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추진 동향	윤희엽 LH 차장
16:00~16:05 (5')	인사말씀	빈준화 서남아지역본부장
16:05~16:25 (20')	인도 필수 인증 및 대응 전략	인치윤 Aleph 매니저
16:25~16:40 (15')	인도 통관애로 사례 및 시사점	윤소연 관세사
16:40~17:00 (20')	우리기업의 전략적 인도 CSR 방안	Geetanjali UNICEF

□ 참가방법

- ① 아래 참가신청 배너 클릭 후 신청서 제출
- ② 이메일, 문자로 제공되는 웹주소로 당일 접속

□ 문의처 : KOTRA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82 02-3460-3475, nsbd@kotra.or.kr



클릭하여 신청글로 이동

